

SK 이대수, 주전경쟁 파란볼 시범경기 타율 0.333...타격부진 김성현에 앞서



SK 내야 최고참 이대수(34·사진)가 시범경기 활약을 토대로 개막 엔트리 합류에 청신호를 밝혔다.

지난해 이대수는 주전 2루수가 유력했지만, 발목 부상으로 36경기에서 타율 0.264에 그쳤다. 올 시즌에도 후배 김성현(29)과의 쉽지 않은 경쟁이 예상된다. 그러나 절박한 각오로 내야 경쟁에 불을 지피고 있다.

SK 김용희 감독도 20일 문학 LG전에 앞서 스프링캠프, 시범경기에서 기대 이상의 활약을 보이는 선수로 이대수를 꼽았다. 김 감독은 “이대수는 일본 스프링캠프에서도 타율이 높았고, 고참급 중에서 가장 기대이상인 선수”라고 말했다. 이대수는 일본 오키나와 스프링캠프 3차례 연습경기에서 타율 0.300(10타수 3안타)를 기록했다. 시범경기에서도 20일 LG전에선 4타수 무안타로 잠시 침묵했지만, 21일 현재 8경기에서 타율 0.333(21타수 7안타)에 2타점을 기록 중이다.

반면 아직까지 주전 2루수 김성현은 시범경기 성적이 저조하다. 6경기에 출전해 타율 0.200(15타수 3안타)에 1타점 1실책으로 부진했다. 지난해까지 2년간 주전 유격수였던 김성현은 올 시즌 허터 고메즈에게 유격수 자리를 내주고 2루수로 전향했지만, 이렇다할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물론 이대수의 경쟁자는 김성현뿐이 아니다. 유서준(20), 최정민(26) 등 신인급 선수들과도 싸워야 한다. 그러나 김 감독은 “신인급 중에서도 기대 이상으로 잘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들의 경우 엔트리 고려를 하기에 앞서 끝까지 경쟁해봐야 알 것 같다. 신인의 경우 팀의 미래라고 느낀다”며 이대수의 재발견에 무게를 두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홍재현 기자 hong927@donga.com

이경호 인턴기자 thiscase@donga.com

대한야구협, 김종업 통합회장 추대 26일 통합창립총회...KBF와 절차 마무리키로



박상희 회장이 사퇴한 뒤 대한야구협회(KBA)와 국민생활체육전국야구연합회(KBF) 통합작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대한야구협회는 김종업 회장직무대행(사진)을 통합회장 후보로 추대해 새 통합체육회의의 법정 출범 시

한인 27일까지 통합의 모든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아마추어야구를 관장하는 대한야구협회는 박 회장이 11일 공식사퇴한 뒤 16일 이사들을 소집해 김종업 부회장을 직무대행으로 승인했다. 회장 유고 시 선임 부회장이 직무대행을 맡기로 돼 있는 정관에 따라 김 부회장이 직무대행을 수행하게 됐다. 대한체육회도 이를 승인함에 따라 대한야구협회는 본격적으로 직무대행체제로 진입했다. 이로써 지난해 5월 박상희 회장과 대한야구협회장 자리를 놓고 선 거전에 나섰다가 패배한 뒤 일선에서 물러났던 김 부회장은 10개월 만에 직무대행으로 일선에 복귀했다.

내분과 계파갈등에 휩싸여 있는 대한야구협회의 최우선 과제는 조직의 안정화와 전국야구연합회와의 통합이다. 특히 23일 오전 11시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리는 이사회가 주목된다. 이날 이사회는 원래 예산 이사회지만, 이 자리에서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될 가능성이 크다. 김종업 회장직무대행과 김은영 부회장의 주도로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 박상희 회장 취임 후 구성될 상임집행부의 해체작업이 진행될 전망이다.

이어 이날 오후에는 통합준비위원회 회의가 예정돼 있다. 통합준비위원회는 대한야구협회와 전국야구연합회가 원활하게 통합을 진행하기 위해 구성하는 임시기구로, 양측에서 7명씩(통합준비위원장 1명, 위원 5명, 간사 1명) 동수로 구성하기로 했다. 양측은 최근 물밑에서 통합에 대해 큰 줄기에서 합의해 통합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김종업 대한야구협회장 직무대행을 통합회장 후보로 추대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야구연합회도 현 박영순 회장 체제에서 내분과 갈등에 휩싸여 있는데, 박영순 회장을 배제한 채 통합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26일에는 통합창립총회가 열린다. 양측 대의원들이 모인 가운데 새로운 통합정관을 채택하고, 통합회장을 정하는 절차를 밟는다. 이어 통합체육회의의 법정 출범 시한인 27일 대한체육회에 통합을 통보한다는 구상이다. 27일까지 통합을 하지 못하는 체육단체는 대한체육회 정가맹단체에서 빠져 임의단체로 전락하게 돼 정부 지원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당초 야구 종목은 마감시한까지 통합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극적으로 통합에 이를 듯하다.

이재국 기자 keystone@donga.com

KIA 박정철, 멈춰있던 시간을 되돌리다

베이스볼 피플

무릎 등 9번의 수술...5년 공백 딛고 1군 복귀 시범경기 4G 무실점·구속도 140km대 후반 “테이핑 벗겨진지 모르고 투구...두려움 사라져”

멈춰 있던 시계가 다시 돌아가는 느낌이라면 설명이 가능할까. 5년이란 긴 시간 동안 1군 마운드를 떠나있던 KIA 우완투수 박정철(30)이 건강하게 돌아왔다. 수술만 9번, 프로 선수가 아니라 일반인도 견디기 힘든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끝내 이겨내고 돌아왔다. 5년이란 시간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그를 만나 진솔한 얘기를 들어봤다.

●공정과 자기관리, 부상에도 “친구 왔네”

박정철의 재활을 오랜 시간 지켜본 KIA 장세훈 트레이너는 “(박)정철이는 어느 순간부터 야구 자체를 즐길 줄 알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비록 오랜 시간 마운드에 오르지 못했지만, 재활의 시간도 즐기며 이겨낸 것이다.

선수 본인은 어떤 식으로 고난의 시간을 즐길 수 있었던 것일까. 박정철은 “수술할 때마다 ‘친구 왔네’라는 생각을 했다. 재활할 때도 ‘오늘은 어떻게 놀아줄까’라는 식으로 마음먹었다”며 활짝 웃었다. ‘오늘 이렇게 놀았으니 내일은 팬층을 거야’라는 긍정적인 생각은 하루 하루를 버티게 한 원동력이었다.

그는 식물 하나를 키워도 정성을 다하고, 좋은 말을 해주면 더 잘 된다는 말을 믿었다. 2005년 신인드래프트 1차 지명으로 KIA에 입단한 뒤 힘겹게 버텨온 자신의 몸을 자신이 먼저 아끼고 사랑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철저한 자기관리에 있었다. 그는 지금도 매일 체중계에 오른다. 양쪽 무릎과 오른쪽 팔꿈치까지 총 9번이나 칼을 뗐는데, 가장 큰 문제는 무릎이었다. 박정철은 “매일 아침과 자



KIA 우완투수 박정철은 9번이나 수술을 받고 5년 만에 1군 마운드로 돌아왔다. 긍정적인 마인드와 자기관리, 그리고 지난해 말 합평에서 던진 2016개의 공이 그의 멈춰있던 시간을 다시 흐를 수 있게 만들어줬다. 스포츠동아DB

기 전에 몸무게를 체크하는 게 습관이 됐다. 무릎에 하중이 크게 걸리면 안 돼서 항상 먹는 것도 신경 쓴다”고 설명했다.

●2016년을 떠올리며 잡은 ‘2016개의 공’

박정철은 시범경기 첫 경기였던 9일 광주 LG전에서 1.1이닝 무실점으로 복귀를 신고했다. 비록 시범경기였지만, 2011년 6월 3일 문학 SK전(0.1이닝 1실점) 이후 1741일 만에 1군 마운드를 밟았다. 당시 그는 “마운드가 참 달다”는 시인 같은 소감을 밝히 화제가 됐다.

박정철은 “1군에서 던지는 게 단맛이라면, 2군에선 쓰디쓴 한약을 많이 먹었다. 작년에 2군에만 머물렀지만, 과정이기에 먹어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왜 쓴맛을 봐야 하는지 냉정하게 보고 답을 찾았다”고 회상했다.

희망차게 2군에서 실전등판을 이어갔지만,

1군 콜업은 없었다. 공을 던지다보면 수술 부위가 아니라 다른 곳이 아파왔다. 수술과 재활로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 밸런스가 무너진 것이다. 마무리캠프에도 가지 못하면서 실의에 빠지기도 했다.

2군이 있는 합평에 남아 꿈꿨다. 생각했다. 어느덧 그도 서른이 됐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날씨가 쌀쌀해지고 있었지만, ‘2016년에는 반드시 1군에 가야 한다’는 생각에 합평에서 투구수 2016개를 채우겠다고 마음먹었다.

●벗겨진 테이핑과 함께 떨쳐낸 ‘두려움’

아무리 마음을 긍정적으로 먹어도 무릎 부상은 여전히 그에게 ‘두려움’이었다. 지난해 1년 내내 무릎에 테이핑을 하고난 뒤에야 마운드에 올랐다. 훈련 때도 마찬가지였다.

투구수 2016개를 향해 묵묵히 공을 던지던 어느 날, 그의 마음을 송두리째 흔든 사건이 있었다. 어느 때처럼 무릎에 테이핑을 하고 공을 던졌는데, 느낌이 좋아 100개, 150개, 180개까지 거침없이 피칭을 이어갔다. 그는 “유독 몸에 힘이 많이 나면서 시원한 느낌이 있었다”며 그 순간을 떠올렸다.

운동을 마치고 샤워를 하러 들어가면서 그는 깜짝 놀랐다. 무릎의 테이핑이 모두 벗겨져 있었던 것이다. 박정철은 “그날 공을 많이 던졌는데도 불편함이 없었다. ‘테이핑 없어도 던질 수 있었는데...’라는 생각에 ‘아차’ 싶었다”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2016개를 다 채우지 못했지만, 합평에서 보낸 겨울은 뜻 깊었다. 그는 “100개를 남긴 1916개에 투구를 중단했다. 그래도 매일 던지고 기록하고 체크하고,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5년간 멈춰있던 그의 시간, 이제 시작이다!

시범경기에선 4경기째 무실점 행진 중이다. 4경기에서 4.2이닝 1안타 6탈삼진 무실점. 마무리로 나와 2세이브도 올렸다. 전성기의 시속 150km는 아니지만, 벌써 140km대 후반까지 최고구속이 올라왔다. 그는 “구속은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 내가 가진 기본적인 스피드가 있고, 나를 믿는다. ‘괜찮아, 걱정마’라며 스피드가 나온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속처럼 보지도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있다. 박정철은 “난 멈춰있던 시간이 이제야 1초, 1초 흐르기 시작했다. 안 아픈 게 먼저고, 마운드에 오를 수만 있다면 감사하다”며 “1군에서 함께 가슴 뛰는 시간을 보내고 싶다. 팬들의 상처, 스트레스를 풀어드릴 수 있도록 아웃카운트 하나 하나에 최선을 다하는 게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명노 기자 nirvana@donga.com



클루비아, WBC 사상 첫 본선행 클루비아국가대표선수들이 21일(한국시간) 파나마시티 로드 카레우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7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예선 3조 결승에서 홈팀 파나마를 2-1로 꺾고 사상 처음으로 WBC 본선 진출을 확정짓고 환호하고 있다. 파나마시티 | AP/뉴스시스



‘미소천사’ kt 김중민, 송곳같은 ‘앞아싸’ 눈에 띄네

시범경기 정확한 송구·강한여객 뽐내 kt 불안요소 포수 수비 해결 대안으로

kt 포수 김중민(30)의 얼굴에는 항상 미소가 가득하다. 두꺼운 마스크도 가릴 수 없는 밝은 표정과 파이팅 넘치는 목소리에 투수는 절로 신이 나 공을 생성 던진다. 김중민에게 ‘kt 투수들은 모두 포수의 리드가 좋아서 편안하다고 하더라’고 했더니 곧장 “아니다. 투수들이 던진 좋은 공을 내가 받은 것뿐”이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kt 주전 포수 장성우는 ‘SNS 파문’으로 인해 올 시즌 50경기 출장정지의 중징계를 받

았다. 50경기 이후에도 복귀까지 갈 길은 험난하다. 모두가 안방을 kt의 불안요소로 꼽지만, 위기의 가장 가까운 친구는 기회다.

김중민은 kt가 치른 10차례 시범경기에도 모두 출장하고 있다. 시범경기 타격 성적은 타율 0.045(22타수 1안타)에 4볼넷 1타점으로 몹시 좋지 않다. 그러나 포수의 가장 큰 덕목인 수비에서만만큼은 매 순간 빛을 발하고 있다. 특히 시범경기에서 전성기 조인성(41·한화)의 전매특허였던 ‘앞아싸’를 수차례 선보이며 자신의 존재감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 강한 어깨와 정확한 송구가 돋보인다.

16일 수원 kt위즈파크에서 벌어진 삼성과 시범경기에선 외국인투수 요한 피노가 “오

늘은 투심패스트볼로만 승부해보고 싶다”고 하자, “시범경기다. 마음껏 던져라”며 4.1이닝 동안 투심패스트볼로만 구석구석 리드를 해냈다. 자신도 주전 경쟁을 하고 있는 처지지만, 포수는 투수를 위해 존재한다는 흔들림 없는 소신을 보여주고 있다.

포수 권위자이기도 한 조범현 kt 감독은 “김중민은 투수들이 굉장히 편안해하는 포수다. 공격력이 더 필요할 때는 윤요섭이 있고, 수비가 더 강해질 때는 김중민이 있다”는 말로 팀의 안방마님들에 대한 신뢰를 표현했다.

이경호 기자 rush@donga.com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